

# 절터 금당지로 교각이... 寺址 보존 '빨간불'

## 울산 가천리 사지 도로공사 추진 '논란'

밀양과 울산을 잇는 고속국도 제14호선 도로 공사 중 발견된 가천리 절터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지표 조사 과정에서 유물과 유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가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를 강행할 입장이다. 사실상 폐사지 보존·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발굴조사지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12의 2 일원으로 신불산 터널 입구다.

가천리 사지는 2013년 7월 국방문화재연구소가 구간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발견했으며, 2014년 11월부터 울산문화재연구소가 해당 구간에 대해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을 통해 금당지·회랑 등 10동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수막새·온돌·우물터·손가락 크기의 금동불상 등이 발견됐다.

건물지의 형식을 볼 때 가천리 사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절터로 평가된다. 발견 당시 일부 시민단체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압유사'라고 추정하면서 "통도사와 직선거리로 4km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을 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찰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원형 보존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건물의 석축까지 나왔다. 석축이 발견됐다는 것은 부근에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매장됐음을 추정케 하는 중요한 단초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4월 8일 현장을 방문해 현장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미 조건부 승인을 이뤄져서 도로 교각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교각 설치 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유구의 활용 방



울산 가천리 사지 전경. 한국도로공사의 밀양~울산 고속국도 제14호선 도로 공사의 지표조사 중 발견됐다.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사찰의 중심인 금당지에 교각 다리가 놓이며, 위로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

**밀양~울산 고속국도 공사 중 6공구 구간 유구 잇달아 발견 문화재위 '先공사 後보존' 가결**  
공사 시 금당지 위로 교각 설치 사지 훼손 불 보듯... 대책 시급 조계종 "공사 중단·정밀조사해야"

을 제출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공사 역시 유구에 3% 정도만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전시 행정이란 지적이 많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교각은 가천리 사지 금당지에 교각 다리를 천공해 위로 도로가 지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사찰의 중심이 되는 금당을 훼손하고, 보존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불교계의 주장이다.

실제,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안)는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가천리 사지의 원형 보존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부장 정안 스님은 "지난해 11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교각 자리에 어떤 문화유적이 있는지도 확인치 않고 교각 설치를 먼저 승인하고, 주변 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안건을 가결했다"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훼손을 초래한 결정은 심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가천리 절터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 유적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지만큼 반드시 원형보존돼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공사 중단 △정밀발굴조사 진행 △진정성이 담긴 사지 보존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안 스님은 "개발을 위한 졸속 발굴은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사지의 명확한 성격과 가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밀한 학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nul.com

## "불교,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한 종교"

인도 로카미트라 법사, '신대승네트워크' 좌담회서

인도 인권운동가 로카미트라 법사 <사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불교'의 중요성을 설교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4월 11일 서울 경자동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 신대승네트워크 초청으로 열린 좌담회에서 "대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제도 혹은 사회 체제'라고만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소통·박애·자비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그 중에서도 불교가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로카미트라 법사는 부처님 생전 당시부터 불교는 사회참여적인 성향을 보였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최근 몇 년간 '참여불교'란 말이 등장했지만 사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안거 기간을 제외, 항상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을 전하고 다니셨다"며 "개인적 깨달음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대승 불교'의 본뜻이 '참여불교'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자비 없는 지혜도 없으며, 지혜 없는 자비도 없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카미트라 법사는 종교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선 △이성과 과학에 부합할 것 △자유와 평등, 자비를 기조로 삼을 것 △가난을 외면해선 안 될 것 등 3가지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로카미트라 법사는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교의 재부흥 추세가 과거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란 점에 주목하고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위 계층인 불가촉천민들은 불교의 평등 정신을 토대로 비폭력·평화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불교가 하층계급 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던 것의 반증"이라며 "불교가 성장할수록 세계적인 문제와 이슈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카미트라 법사는 영국 태생으로, 26살 때 영국 출신 승려이자 불교 지도자인 상카라시타 법사를 만나 불교에 귀의했다. 박아름 기자

## "미인증 LED연등, 사찰 화재 주원인"

문제부, 인증제품 사용 권유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계종에 전통사찰 화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미인증 LED연등에 대한 단속과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과거의 한 전통사찰에서 미인증 연등용 LED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해 대안 안전조치다.

문제부가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에서 연등이 늘어남에 따라 필히 인증제품을 사용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문제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과거 전통사찰 대응전을 태운 화재가 연등용 LED 전구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증 제품은 과열시 매우 위험하다.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각 전각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서 안내와 방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4월 12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종교시설 발생 화재는 677건으로 이중 전통사찰 화재가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인증 LED연등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사회노동위, 팽목항서 세월호 2주기 추모법회

유가족이라도 되게 해달라는 괴팍한 절규. 애꿎은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다. 300여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차가운 바다에 휩쓸려 간 지 벌써 2년. 두 번째 봄이 왔건만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권재근, 권혁규, 고창석,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이영숙, 조은화, 허다운, 눈물에 사무치도록 부르짖는 내 딸의, 내 아버지의 이름, 싸늘한 주검조차 안아보지 못한 채 발견음을 돌려야만 했던 시간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질게 내려앉은 어스름이 애석하기만 하다.

세월호 침몰 2주기를 이틀 앞둔 4월 1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운, 이하 사회노동위)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 희생자 추모제 및 인양 촉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 스님 10여 명을 비롯해 미수습자 조은화 씨 가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흥의대 청소노동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오후 7시에 시작된 추모 행사는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의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염불 의식에 이어 헌화, 미수습자 조은화 씨 가족과 면담, 인양 촉구 풍등 날

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염불의식을 마친 스님들은 아직도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하는 현실에 크게 안타까워했다. 사회노동위원 고금 스님은 14일 오전 정부가 '5월 세월호 인양에 착수해 7월 경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제라도 인양 계획이 발표돼 다행이지만 본격 인양에 착수할 때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세월호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속한 인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미수습자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 씨와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씨는 "은화가 세월호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불렀을 이름이 '엄마'였을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100프로 은화가 배 안에 있을거라 믿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며 "하루빨리 9명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지난해 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을 방문, 희생자 추모제 및 인양 촉구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염불의식을 하고 있다.

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4월 14일 조계사에서 추모 대법회를 봉행하고, 16일에는 전국 사찰서 일제히 추모 타종식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해이혜·김초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1000배기도 및 오체투지를 실시하는 등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 및 세월호 인양 촉구에 앞장서 왔다.

양한용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접차 있어가는 현실에서 기억과 관심을 당부하고자

팽목항에 내려왔다"며 "인양이 개시된 후에도 사회노동위는 팽목항을 다시 찾아 추모기도회를 여는 등 희생자 및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노동위는 4월 2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세월호 생존 학생과 형제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다시 봄이 올 거예요>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도 팽목항=박아름 기자

##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조속히 인양해야"

#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 (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대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은 초대장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 잔	제22見 직거래?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심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불 회음경..
제6見 참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아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화엄경_7행시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은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 도서출판 앙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